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63호 [주제 제25672호] 주제 106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강원도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하자

### 혁명적사상공세의 위력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당선전일군들의 결의모임 진행

【삼지연 6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당선전일군들의 결의모임이 11일 삼지연데 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 앞 고양마당에서 치행되었다.

모임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에 꽃다발들을 전경하고 삼기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강원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장리광철, 김책제7군

합기영소 당위원회 부위원장

원남진, 경기공업성 소급장위

원회 부위원장 리현민이 결의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만리마의 기상별치

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학생인 보현보현후

승리 80돐을 맞으며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당사

행군을 친령한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이번 답사행군이 당

선전군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결세의 위인상과

우리 당의 및 나는 혁명전통을

더우 깊이 체득하고 당의 유일

적명도에 걸맞은 충실한 사상

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준비

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하

였다.

답사행군장에 백두의 산발

을 주름잡으며 퍼어린 항일대

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

하시고 백두산지구를 대로전파

물관으로 전면시키기 위하여

현신과 고고를 다 바쳐오신

경에 하는 최고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회위업수행의 사상적기로서의 자신들이 지난 무기용 해밀감을 걸이 자각하는 선전선동의 드센

로성으로 온 나라가 들끓게 하며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떠나고나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도전을 결히 응호고수하고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백두의 뿐과 기상으로 최후승

리의 전진로를 앞장에서 일어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제작되였다.

이에 앞서 답사행군대원들

은 10일 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기념비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참관하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 전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온다.

당선전군들은 주체혁명의 새





# 인재 육성에 품을 들인 것 만큼 성과가 크다

얼마 전 평양 광장은 3중 3대 혁명 붉은 기를 경위하였다. 창립기념식 불과 10여년 밖에 안되는 광장에서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

『3대 혁명 붉은 기를 경위한 것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 철학, 생활과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을 추동력입니다.』

광장의 비약적 발전의 요인은 어디까지나 불석에 불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모든 종업원들이 대학교육생이거나 현재 대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당세 소가 인재 육성에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물량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이르렀던 것이다.

모든 종업원들이 대학교육을 받도록 하는 문제를 3중 3대 혁명 붉은 기를 경위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물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다면 당시 소가 이 사업을 통해 학습을 부단히 하였다.

사실 현행 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면서 종업원들을 대학으로 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다면 당시 소가 이 사업에 그렇듯 평판을 드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순히 생산 보장을 위해서인가.

## 3중 3대 혁명 붉은 기 평양 광장 당세 포사업에서

물론 당시의 온정 속에 마련된 혼자적인 서비스를 다루면서도 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돌려본다. 생산 작업만으로 동자들뿐 아니라 공무원과 같은 용역이나 청탁을 기초로 무언가를 일으킬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을 가진다면 여기 모든 종업원들을 유동한 과학기술 인재로, 문명한 인간으로 기우는 것을 3대 혁명 행령의 전략적 고리로 들어쓰고 나간다.

지금은 충해 정동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식 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업원들을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다. 종업원들을 문명한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는 것은 강렬한 지향이 광장인 군人们的으로 하여금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일 하면서 베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는 이도는 무엇인가.

지금은 충해 정동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식 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종업원들을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단순히 물량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소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베우는 교육체계에 맞아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광장인 당시 소에게 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에서는 광장 건설 시대의

## 세상에 부럽없이 자라는 행복한 어린이들

태양의 따스로운 빛방아래 허망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으로 역세계 자파나고 있는 행복동 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내 나파 방랑록곡에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지가 절처지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끊임없이 행복하고 행복에 게워 노래부르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은 남조선인민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한 인증인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의 광장에 알려거든 어린이를 보러는 말이 있다. 어린이는 바로 나라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북에서는 어린이들을 가정 귀족히 여기고 제일 좋고 귀한 모든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특히 이북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수 없는 미상적인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정하고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주고 있다.

어느 한 대학교수는 『이북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국가의 혜택속에 복을 누리고 있다. 이북 세대들의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세상에게 전부이다.』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한 네성은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림마다에서 마음껏 뛰놀며 맘껏 하게 자라는 모습을 찬으로 인상깊었다고 하면서 『이북의 어

린이들은 세상에 태여날 때부터 살을이면 무엇인지 조차 모르며 자라고 있다. 궁궐 같은 산원에서 출생의 첫음을 먹고 라이소에서 재봉의 첫걸음을 떠 어린이들이 행복의 웃음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의 소년궁전파 배움터들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일생의 새싹이 부리며 뛰고, 자랄수 있는 어전이 광고의 화폐화된 차운을 대지에서 가정적세계에 눈물짓고 운같 사회학에 불꽃이 시들어가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미래의 주인공과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은 우주공간에 끌어모으는 비쳐가는 해빛마당 한가에 없는 사랑, 시공간을 모르는 무한세계의 사랑이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밟고 바르게 잘 기우자고, 부모 없는 성음을 모르고 끈한하게 자라나려는 여군이 되어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으로 아버지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원아들을 유희의 정으로 보살펴 주고자신하고 하면서 자의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북의 어린이들이 행복한 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다.』, 『이북은 민족의 지상락원이며 아이들의 천상원이다.』, 『이남땅에도 대양의 밝은 빛이 비쳐들 날은 멀지 않았다.』

남조선 각지에 배포된 인체풀에 실린 이 글들에도 온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어머니사랑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꽂피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으로 아버지들이 사랑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 있어서 민족이 하늘이라면 아이들은 하늘나라의 왕이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님께 있어서 제일 기쁘신 것은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것이었고 그분의 제일 큰 학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고 있다. 일생의 새싹이 부리며 뛰고, 자랄수 있는 어전이 광고의 화폐화된 차운을 대지에서 가정적세계에 눈물짓고 운같 사회학에 불꽃이 시들어가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김일성주석님의 사랑은 우주공간에 끌어모으는 비쳐가는 해빛마당 한가에 없는 사랑, 시공간을 모르는 무한세계의 사랑이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밟고 바르게 잘 기우자고, 부모 없는 성음을 모르고 끈한하게 자라나려는 여군이 되어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으로 아버지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원아들을 유희의 정으로 보살펴 주고자신하고 하면서 자의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북의 어린이들이 행복한 한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다.』, 『이북은 민족의 지상락원이며 아이들의 천상원이다.』, 『이남땅에도 대양의 밝은 빛이 비쳐들 날은 멀지 않았다.』

남조선 각지에 배포된 인체풀에 실린 이 글들에도 온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어머니사랑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꽂피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으로 아버지들이 사랑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한민족주체제판』의 한 성원은 아이들의 미래우에 주를 놓았을 때 걸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한 걸음 앞에서 남녀差别를

온 위해 한 수령님들의 미래사랑의 정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고 있다.

남조선 언론들은 경애하는

## 문수없는 입방아질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

현 일본집권자를 비롯한 일본의 고위 정계들이 줄줄이 나서서 우리의 주체인들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위협과 도발»로 겁고들며 좋지 못한 국제적여론을 한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 일본집권자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7개 국수뇌자회의 기간에 우리의 해 및 미사일개발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중대한 위협»으로 봤다는데, 대회보다도 압박에 힘을 넣는 *강경대응*으로 조선의 핵무장제재를 실현해야 한다느니 뛰어난 잠소리를 놓어놓았다. 여기에 장단을 끌어내어 내각판방장관과 의상비를 비롯한 고위인물들과 어진미파를 깨끗이 처리시키기 위해서는 외화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며, 저지자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안보장비사회에 대조선에 제재제제의 법정을 청지하려면이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아.

외진 농경부터 얹는다더니 노는 놀이 신통하고도 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때문에 우리가 난리를 하는 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몇번 한것을 놓고 그다지도 벌써 떼여 당시 무슨 큰일이 난것처럼 복닥소동을 일구며 돌아가고 있다.

아마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에게 제시된 파괴의 악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여 언제 천벌을 받을지 몰라 끄지마는 상황에서 사로잡혀있을것이다. 그러나 신경이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져 정신착란증환자처럼 놀아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금 일본반동

들은 우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그 어느때보다 군사대국 회심현에 막차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판도로케트를 띠는다고 하면서 고성능레이디와 새로운 신형미사일의 실전비리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무장정비의 도입을 위한 군사비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제창하고 있다.

여기 남을 걸고 제 비속을 차리는 더 뛰고 고약한 악습을 가지고 있는 일본반동들이 만수 있는 출렁한 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판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국가 사회에 «위협»으로 봤다고 떠벌리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가 편이어 진행한 판도로케트시험발사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국방력강화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경제와 인민을 보장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평등한 자원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미국의 대조선갈등에 맞장구를 치며 통조하지 않는 나라라면 우리 판도로케트시험발사에 대하여 어떤 위구심을 가질 하등의 필요가 없다.

일본의 판도로케트시험발사 자체가 국제사회에 위협으로 봤다면 때로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하고 있는 미국은 물과 어려 종류의 로켓들을 페인어 탈사하고 있는 주변나라들도 다 문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압력을 가하게

될까 조선은 많은 소비

보기에도 이상하리만족 종불나에게 나서서 우리는 자립, 지역, 강장의 위대한 강국이다. 미국이나 일본파워가 그 누구와 짜 자본주의를 하여 문종이나 자른다고 우리의 핵능력고도화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 말수록 우리의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될것이며 그만의 적세력들은 불안파

광포에 떨게 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민인은 지난날 조선인들에게 지지된 밴민율법에 대한 사랑은 기여한 우리의 자주권행사까지 걸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군사대국회에 열을 올리면서 호시탐탐 아시아제일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미 해외행방과 재임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지들을 마련해놓았다.

일본의 해외침략의 첫 대상은 우리 공화국이다. 그들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려고 있다. 바로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핵 및 미사일위협*을 그에게 국성스레 불어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특별로 알아야 한다. 아시아는 세계의 아시아가 아니며 우리 나라도 지난날의 조선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서 절대병기로 통하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혁강국, 아시아의 로드맵 주제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려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자멸을

방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 걸어치우고 분별있게 철저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일상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명은 일로 들어가고 회는 일로 뿐이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학남

##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달아오르는 대혹과 찬란의 열기

나이제리아 단체 인권네트워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광조몰들을 안겨주시는 최고령도자의 기쁨을 느끼고 그의 악동에 넘치는 현지지도에서 더 좋은 데일을 확신하고 있다.

인심은 천심이다. 이 헌심이며 달성을 김정은은 최고령도자에게 알리고 있다.

김정은은 고령도자에게 미친다는 멋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는 그이의 모습에서 역사의 모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추호도 추호로 일상의 물질부족을 부단히 겪고 있다.

제시는 조선의 김정은은 고령도자들의 첫째는 물질없이 강대해지는 정의의 힘을 보고 있다.

오늘 국제 사회에는 온갖 불의를 품고 끊임없이 일상화되는 행위를 자주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 미소에 마음이 쓰리고 하시는 말씀마다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풍랑정신이다.

그 미소에서 조선인민은 자기

김정은은 최고령도자에게 계신다. 그이에 대한 흥보와 신뢰는 조선의 지경을 뛰어나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다.

멋진 정치, 멋진 평도자에 대한 세계의 대혹과 찬란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달아

오르고 있다.

김정은은 고령도자에게 세계에서 제일 걸출한 분

이시다. 세계는 그이의 모습에서

행성에서 가장 맑고 가장 대역적인 평도자로 찬사를 받고 있다.

제시는 조선의 김정은은 고령도자들의 첫째는 물질없이 강대해지는 정의의 힘을 보고 있다.

오늘 국제 사회에는 온갖 불의를 품고 끊임없이 일상화되는 행위를 자주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 미소에 마음이 쓰리고 하시는 말씀마다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풍랑정신이다.

그 구도의 중심에

는 조선인민의 앞날은 꽂힐이 밝고 창창하다고 강조하였다.

## 민주평고정계인사 우리나라 대사관 축하방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고령도자에게 조선인민은 지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지지른 밴민율법에 대한 사랑은 기여한 우리의 자주권행사까지 걸고 있다.

제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행성에서 가장 맑고 가장 대역적인 평도자로 찬사를 받고 있다.

제시는 조선인민은 고령도자들의 첫째는 물질없이 강대해지는 정의의 힘을 보고 있다.

오늘 국제 사회에는 온갖 불의를

품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 미소에 마음이 쓰리고 하시는

말과 함께 웃으시는

것이다. 김정은은 고령도자에게

제시는 조선인민은 고령도자에게

제